	한국사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4 조선-2 사림세력의 대두와 정치운영의 변화	학번	
	임종일 T		이름	

★ 사림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다

- 훈구 : 세조즉위에 관여한 공신. 성종대에 고위관직 독점
- 사림 : 신진사대부 중 조선건국 이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와 제자양성에 힘쓴 세력. 성종이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3사 연관직(연론기관)에 중용
- 사림이 향촌자치와 왕도정치를 추구하며 훈구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

★훈구와 사림의 갈등 - 사화

- 연산군즉위, 훈구는 사림을 공격하기 시작
- 연산군도 동조 - 두 차례의 사화 발생
- 1498, 무오사화
 - 김종직, 조의제문을 문제삼아 축출
- 1504, 갑자사화
 - 폐비윤씨 사건 관련있는 훈구와 사림을 제거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즉위 -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가 권력을 장악
중종,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세력을 등용 -훈구세력을 견제하고자 함.

♥ 조광조의 개혁정치

- 유교적 도덕정치의 시행을 주장 -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
- 현량과 실시 (사림등용)
- 소격서 폐지
- 향약실시, 소학보급, 경연강화
- 공훈삭제 [공신들의 큰 반발]
- 사화의 발생 (1519, 기묘사화)

명종, 사화발생 (1545, 을사사화)

이처럼 사림들은 사화를 겪었으나,
[서원과 향약] 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세력확대.
선조 대에는 정국을 주도

★붕당의 등장, 공론정치가 펼쳐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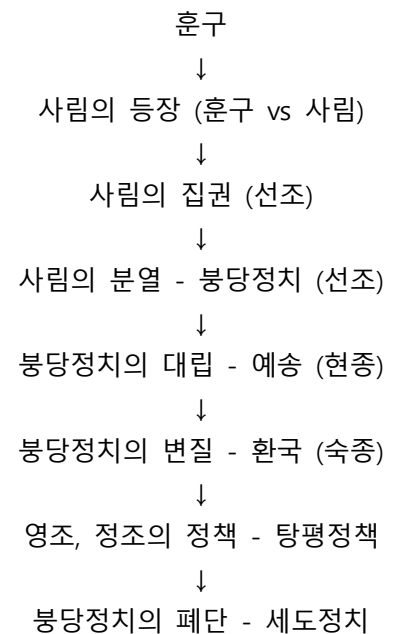
사림이 정국을 주도
but, 사림의 분열
because 척신정치의 잔재 청산 & '이조 전랑'임명문제
동인 (척신 배제!) - 서인 (사림에 우호적인 척신 포용!)의 붕당 출현
이후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짐.


광해군때 북인이 집권, 이때, 서인과 남인 배제, 권력을 독점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후에는, 서인지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남인과 공존하면서 공론에 따른 정치를 추구
but, 현종 때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이 일어나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 심화

#사림의 계보



<조선 정치사 주도, 사건>



	한국사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4 조선-2 사림세력의 대두와 정치운영의 변화	학번	
	임종일 T		이름	

★봉당정치의 변질, 탕평정책 실시

봉당정치

장점) 지방사족의 의견까지 공론으로 수렴하고, 봉당 간에 비판과 견제가 가능
but, 봉당간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변질되기 시작.

#환국

숙종) 잦은 '환국'으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권력을 장악

-상대 봉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이어짐.

->상대 봉당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으며,

공론은 봉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됨

숙종 대에 탕평책이 제기되기도 했으나(박세채),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영조, 정조 때 실시

#탕평 [수능에서 자주 출제됨!!!]

영조 ver.

'탕평론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 [완론탕평]

& 봉당의 근원인 서원을 대폭 정리

영조의 정책

-탕평비 건립, 탕평채 등장

-균역법, 법전정리(숙대전), 신문고부활, 사형삼심제, 노비종모법

-산림의 존재 부정, 서원정리, 이조전랑의 권한축소

정조 ver.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림 [준론탕평]

규장각 설치, 초계문신제 시행(관리 재교육), 수원 화성을 세움

정조의 정책

정약용 / 채제공

장용영, 규장각, 초계문신제, 서얼출신을 규장각 검서관에등용

법전정비(대전통편), 수원화성

but, 탕평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봉당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함.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음)

-정조 사후 외척인 안동김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가 시행됨.

탕평비

신 의가 있고 아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침하고 신 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참고)

경신환국(서인)

→ 기사환국(남인)

→ 갑술환국(서인-소론)

+문학작품

김만중, 사씨남정기